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4 미래교육포럼/문화평
- 05 교육과 스승
- 06 교육과 학문/교육현장 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탐방

학사 일정

12월

- 10(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 8(수)~21(월) 2학기 기말고사
- 17(금)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 22(수) 겨울방학 시작
- 25(토) 성탄절(공휴일)

2022년 1월

- 1(토) 신청(공휴일)
- 3(월)~5(수) 원제본 논문 접수
- 31(월) 설날(공휴일)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김성일
- 주 간 김홍찬
- 간 사 문장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 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교육신문

2021년 12월 5일(일)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482호(월간)

■ 초점

건전 사학의 기틀을 세우는 한국사학진흥재단

■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33년간 대구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교수를 거쳐 8년여 간 총장을 역임하고, 지난 6월에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교육자의 길을 걷다가, 대학경영자를 거쳐 지금은 우리나라 사립학교들의 발전과 진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업무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후학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비전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32년 전인 1989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근거해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약 10여 년 전부터는 사립대학들에 대한 지원이 주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과 역할로는 먼저 융자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들에서의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을 위한 시설 투자, 학생안전에 대한 투자 등에 들어가는 목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복기숙사 사업으로, 대학생 주거문제와 청년주택난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국 사립대학과 법인의 예·결산, 교육시설, 수익용 자산, 기숙사 시설 등과 관련된 재정회계 자료들을 집계·분석하고, 점검·감리하는 일도 수행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재정통계 자료들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 알리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학경영컨설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행정 교육 및 연수, 대학정보화 지원, 폐교대학 종합관리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 사학으로의 진학은 종종 학생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재단에서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2006년경, 정치권에서 값비싼 대학등록금이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반값 등록금'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열악한 청년주거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행복기숙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채택된 것입니다. 즉,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일선 사립대학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기숙사를 짓고 운영하도록 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25만 원 이하의 기숙사비로 양질의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영



홍덕률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합니다. 공적 자금으로 건축되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장애인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 사회적 배려자가 일정 비율 우선 입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립대학의 행복기숙사 모델을 확장해 국·공립대학의 캠퍼스 부지나 국공유지에 행복기숙사를 짓고, 국·공립대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의 여러 사립대학 학생들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행복기숙사(연합) 모델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 42개 행복기숙사에서 2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이 입주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기숙사에 비해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압니다.

■ 최근, 교육부에서 부실대학 명단을 공표하여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사학의 존폐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재단에서는 운영이 어려워진 사학에 어떤 도움을 제공하고 계신가요?

고등교육 예산을 비교했을 때 OECD 회원국 평균이 GDP 대비 1%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0.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수준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에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됩니다. 한편, '부실 사학에 대해서까지 국고로 지원하게 되면, 부실 사학을 연명하게 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문을 닫아야 할 대학은 빨리 닫게 해서 학생 피해를 막고 건전 사학을 추려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이 최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나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일부 대학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퇴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 때 퇴출 대상 대학들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지, 합리적

인 기준을 정하고 대학 퇴출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겁니다. 건전 사학이면서 작금의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위기에 내몰린 사학들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양질의 사학으로 일으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재단에서는 사학이 번영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하고 계십니다. 사학 운영에 있어 투명성, 청렴성 및 전문성의 제고를 강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 예산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학교와 사학법인의 운영이 투명하고 청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사립대학, 사립대학 법인, 산학협력단 등의 재정 정보를 집계하고 점검하며 감리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울러 회계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은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쌍방향 소통에 익숙해진 세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 및 관심과 진로에 맞춰 일대일 눈높이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는 과거 교육자에게 요구됐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 외에 교육방법론, 교육심리, 교육공학, 교육사회학 등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교육자와 교육정책이 요구됩니다.

■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전환기의 교육자와 교육 당국은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교육 당국과 교육자가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은 미래 세대이고, 그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과 덕목을 학교에서 터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배운 것과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는 교육 정책과 교육자는 미래 세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넓은 방식에 안주하며 과거의 지식·이론·방법을 배우고 외워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신문 독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육신문사입니다.

저희 교육신문은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전문지로서 교육의 이론과 방법을 연구 및 보급할 목적으로 1971년 5월 10일 "고대교육대학원보"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교육대학원 중 유일하게 발행되는 교육전문지로서 교육 정책과 교육학 및 교수법의 동향, 원우·교우 분들의 소식 등을 알리고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는 장(場)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1973년 10월 29일에 "고대교육신보"로 바뀌었던 제호는 2004년 10월 "교육신문"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간 당시 타블로이드판 4면 원간 체제였던 구성은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확장되었고, 국내외 교내에 초점을 맞추던 편집 기조도 학술 및 세계 교육 동향을 포괄하여 명실상부한 교육전문지로서의 입지를 굳혀 왔습니다. 지면 구성 또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반영하고,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두를 던지기 위해 변화를 거듭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교육과 언론 모두에 대전환을 위한 고민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교육신문 역시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감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교육신문은 정해진 지면에 한정되지 않으며, 또한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 더 큰 토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1월호부터 웹진 형식으로 전환됩니다. 교육대학원 구성원 및 교우 분들에게는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며, 그 외 신문을 구독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은 신문사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계와 현장 및 예비교사들의 고민을 깊이 있게 담아내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2학기 연구사례보고서 및 연구지도보고서 제출 안내

이번 학기 졸업을 앞둔 5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가운데 학점중심과정을 택한 원생은 연구사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1학년도 2학기에 ‘연구지도’ 과목을 수강하는 4학기 이상 재학생은 동일한 기간 연구지도보고서를 내야 한다.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6일(월)부터 10일(금) 오후 5시까지이며, 기한 외 제출분은 받지 않는다.

연구사례보고서는 졸업 논문을 대체하는 서류이므로 제출 시점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제출이 가능하다. △학위취득방식이 학점중심인 5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연구사례보고서 제출 시점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전공, 교직) 모두 합격 △수료에 필요한 요건 모두 충족

연구사례보고서의 분량은 다섯 쪽 이상이며, 지도교수의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 접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졸업자 사정에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연구사례보고서 기제출자 또한 반드시 기간 안에

연구사례보고서 접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사례보고서 및 접수 신청서 양식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연구사례보고서 및 연구사례보고서 접수 신청서 미제출로 인한 졸업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출처는 교육대학원 행정실(운조우선교육관 405호)이며, 수료요건 및 졸업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하므로 방문 접수만이 허용된다. 운조우선교육관 출입 시 발열체크 및 학생증 태그 또는 출입자명부 작성을 해야 한다.

한편, 연구지도보고서에는 학기 중 ‘연구지도’ 과목을 통해 지도받은 내용을 양식에 맞게 기재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지도보고서 양식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연구지도보고서는 월 2회 작성 및 매 학기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 첫 학기인 4학기에 연구지도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학기 연구지도보고서와 4학기 자료를 함께 제출

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하여, 제출 방법은 한시적으로 이메일 제출을 허용한다. 이메일 제출 시, 지도교수가 연구지도보고서를 확인 및 승인하였다는 증빙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메일은 edugrad@korea.ac.kr로 발송하며, 제목 양식은 ‘2019421123/가정교육/김고려 [2021학년도 2학기 연구지도보고서]’와 같이 통일한다. 연구지도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위 청구 방식(논문 중심 과정, 학점 중심 과정)에 관계없이 모든 ‘연구지도’ 과목 수강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학점 중심 과정을 선택한 경우 연구사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문 확인이 필수이므로 이메일 제출 불가

연구사례보고서 및 연구지도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02-3290-1377)로 문의할 수 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2021학년도 2학기 제2차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지난 11월 6일(토) 운조우선교육관 306호 컴퓨터실에서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제2차 적·인성 검사가 있었다. 이번 검사는 학부 및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자격취득 예정자로 적·인성 검사를 미응시하였거나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교직 적성 및 인성에 관한 3개 세트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검사 실시 중 교내 네트워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응시자에 한하여 손을 들면 자리를 옮겨 재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응시 후 약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된다.

대통령령 제24160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별표1]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3항 관련) ‘2. 성적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기준’에 따라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반드시 적·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교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신청은 포털에 로그인한 후 ‘정보생활-교직사항-인성적성검사 신청’을 통하

여 할 수 있다.

한편, 13학번부터는 졸업 전까지 총 2회를 응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응시 횟수는 학기별 1회로 제한되며 일반대학 교직이수학생의 경우 선발 시 시행한 적·인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1회를 응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번 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경계하여 실내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였다. 각 차수별 응시인원은 20명 내외로 제한하였으며 검사 응시생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였다. 또한, 각 차수의 검사 종료 후에는 약제를 사용하여 실내 방역을 진행하였다.

서예향 기자 je_fragrance@korea.ac.kr

교육경영 AMP 크림슨봉사단 창립총회



지난 11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교우회관 2층 프라자홀에서 ‘교육경영 AMP 크림슨 봉사단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는 양재진 크림슨봉사단 부단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1부 창립총회, 2부 오찬 및 자기소개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본 식에는 조동일 크림슨봉사단장, 이재연 교육경영 AMP 교우회장, 어도선 사회

공헌원장, 김성일 교육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총 47명의 회원과 내빈이 봉사단의 출발을 함께하였다.

총회를 시작하며 조동일 단장은 “본 봉사단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사회 공동체에 환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오늘의 자리가 더불어 사는 참다운 가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말

을 전했다. 이어서 김성일 교육대학원장은 “남을 돕는 일은 결국 자신에게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라며 “자발적인 봉사단이기에 의미 있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본 크림슨 봉사단은 교육경영 AMP 학우들이 ‘더불어 사는 참다운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꾸린 봉사단이다. 소득 불평등에 따른 교육격차 및 국가·지역·도·농간 기회 불평등 해소, 지구촌 나눔, 저소득층 지역인재 육성을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첫 운영위원회 회의로 크림슨봉사단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오는 12월부터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예비고등학교 캠프를 통한 진로·진학 점진 등 본격적인 봉사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예향 기자 je_fragrance@korea.ac.kr

2022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마약 검사 결과 제출 안내

2022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는 오는 1월 7일(금) 16시까지 마약 검사 결과를 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등교육법」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21학년 8월 이후 졸업자부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단, 부전공 및 교원자격증 재발급자와 재교육과정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출 서류는 검사 결과서 또는 진단서로 유효기간에 유의하여야 한다.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이후 발급된 결과서·진단서만 인정 가능하다.

검사는 법무부 지정 검진 가능 의료기관 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해당 병원에 연락하여 검진을 신청한 후 TBPE(소변), 혈액, X-ray 검사 중 한 가지를 받고 검사 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 받은 서류는 교직원(운조우선교육관 507호)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발송 시에는 학번과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결과서·진단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원본 제출이 요구된다.

전문상담 1급 과정에 있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 소속 교육청에서 자격증 발급 시에도 검사지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병원에서 서류 발급 시 2부를 요청하도록 권장한다. 이 중 1부는 기한 내에 교직원에게 제출하고, 다른 1부는 이수증 수령 후 소속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반드시 교직원에게 연락한 후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2022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입학시험



지난 11월 27일(토) 오전 9시부터 운조우선교육관과 정경관에서 ‘2022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입학시험’이 진행되었다.

본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응시자들의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및 발열 여부 확인을 진행하였다. 현관 출입 시에는 사전에 작성한 문진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응시가 불가능하

였다.

교육대학원은 이번 전기 입학 전형 을 통하여 아래 22개 전공의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이 중 가정교육, 교육사철학, 생물교육, 일반사회교육, 일어교육 전공은 전기에만 모집한다.

△가정교육 △간호교육 △교육방법 △교육사철학 △교육정보 △교육행정및고등교육 △국어교육 △기업교육 △도덕윤리교육 △미술교육 △상담심리교육 △생물교육 △수학교육 △

역사교육 △영어교육 △유아교육 △일반사회교육 △일어교육 △체육교육 △컴퓨터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구술시험 당일, 응시자들은 오전 8시 30분까지 지정된 전공별 대기 장소에 입실하여 순서를 기다렸다. 면접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으며, 인솔조교의 안내에 따라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공에 따른 세부 평가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향후 연구계획,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구술시험 결과는 서류 평가 점수와 함께 최종 합격자 선발 과정에 반영된다. 구술시험에 불참한 응시생의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최종 합격 여부는 오는 12월 17일(금) 본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에 공고될 예정이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지난 11월 2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2022학년도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이 실시되었다.

시험은 총 3교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교시(오전 9~10시)에는 교육학, 2교시(오전 10시 40분~오후 12시 10분)에는 전공A, 3교시(오후 12시 50분~2시 20분)에는 전공B 시험이 시행되었다. 교육학은 논술형 1문항 20점, 전공A는 기입형 4문항과 서술형 8문항으로 총 40점, 전공B는 기입형 2문항과 서술형 9문항 총 40점으로 구성되었다. 전공A는 교과 교육학을, 전공B는 교과 내용학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한편, 제1차 시험은 응시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응시 시간 및 문항 구성이 동일하다.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31일(금) 오전 10시에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

고될 예정이다.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2차 시험의 경우 사·도 교육청별로 그 운영 방식이 상이하므로, 응시하는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일정 및 방식을 다시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으로,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실가·실험 평가 실시과목 응시자는 2022년 1월 19일(수) 실가·실험 평가에 응시하게 된다. 1월 25일(화)에는 비교수 교과를 제외한 교수교과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1월 25일(화)에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이루어진다. 최종 합격자는 2022년 2월 10일(목) 오전 10시에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과 이슈

박지영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필자의 요청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결에 참조할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사망의 원인을 탐색하는 조사방법 중 하나인 질적 심리부검(qualitative psychological autopsy)을 진행했다. 그리고 A를 통해 학교 안 성소수자 아이들이 겪지 않아야 할 고군분투의 실재를 보았다.

그 고군분투의 발원은 아웃팅, 조롱, 거침없는 욕설과 비웃음... 그리고 혐오였다.

혐오는 인간이 타인에 대해 갖는 가장 취약하고 비열한 감정이며 행위이다. 혐오는 타인의 존재와 존엄성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고통감을 유발하는 것조차 타당한 결과라 여기는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분노'와 '싫음'이다. 동시에 혐오는 마치 회오리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로 확산하면서 세력화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조롱으로, 어떤 이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또 어떤 이는 다수 속에 숨어서 침묵으로 그 혐오에 힘을 더하는 것이다.

친구의 아웃팅으로부터 시작된 급우들의 혐오를 9개월 동안 매일같이 견뎌야 했던 A의 상황은 결코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 아니다. 누군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이겠느냐만, 보통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A가 단지 성적지향에서의 차이 하나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다수의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A를 혐오할 수 있었던 이유를, 비록 그 시간들이 한참 지난 현 시점이라도 한 번쯤은 반성하며 풀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도 수많은 A들이 학교 안에 존재하고 있고, 더 이상 이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 A의 선택을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혐오와 대치(對峙)하고, 소수자 아이를 보호해야 할 학교 내 장치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필자는 학교 안 '어른들의 침묵'으로부터 반성을 시작

하고자 한다. 다수로 뭉친 아이들에게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관계를 보여줘야 했던, 그리고 그 공존의 틀을 깨어버리는 행동이야말로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고 보여줘야 했던 어른들. 그 어른들의 침묵이 혐오의 소용돌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과연일까? 어떤 형태로든 폭력 앞에 놓인 아이를 두고 침묵하는 것은 그 폭력에 대한 암묵적 동의이고 명백한 방임이다. 때로 침묵은 행위자에게는 공격적인 힘을 더하고, 피해자에게는 집단괴롭힘보다도 더 강력한 무력감과 세상에 하나같은 고립감, 그로 인한 절망을 초래한다. 그렇게 A도 모두의 침묵 속에 학교 공간에서, 교실 안에서 '대놓고 놀려도 되는', '마음껏 혐오해도 되는 대상'으로 무너져 버렸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The Trevor Project(2020)가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13~23세의 성소수자 청소년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십대 LGBTQ(성소수자를 뜻하는 용어로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와 Queer(성소수자 전반) 혹은 Questioning(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을 뜻함)의 40%, 그리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50% 이상이 최근 12개월 이내에 심각한 수준으로 자살 시도를 고민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각각 48%, 60% 이상이 자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지영, 2020)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게이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에서 조사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서 18세 이하 응답자의 45.7%가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53.3%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학교에서 아웃팅된 경험이나 아웃팅 이후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부담한 처우를 받은 경험, 그리고 언어·신

체적인 반(反)동성애 폭력 경험이 심각한 수준임을 공통적으로 보고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최소한 성소수자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은 아닌 것 같다.

A는 끊임없이 학교에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담임교사,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을 시도했지만, A에게 돌아온 건 정신과 치료 권유와 남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훈계였다. A의 성정체성은 어디서도 부정되었다. 더욱이 학교에서는 급우들의 동성애 혐오에서 시작된 다툼과 집단괴롭힘의 희생자가 아닌, 이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 낙인찍혔다. 결국 A는 9개월간 버텨 왔던 싸움을 멈추었다. 도움 요청도, 고등학교를 입학하며 키워왔던 꿈도, 가족도, 미래도 다 멈추었다.

“점점 더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의 메모 中>

필자가 A의 생전 삶을 따라가며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급우들의 아웃팅, 혐오, 집단괴롭힘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자신을 이해하리라, 도와주리라 믿으며 버티다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버티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느꼈을 A의 좌절과 절망이었다. 아이들 각각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도, 과업도 아니다. 어른으로서 당연한 노릇이다. 그 다양성에 성적 지향이 배제될 이유가 없으며, 그 도움이 급우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요청이었다면 학교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 소리에 침묵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성소수자 아이들도 보통의 소속감, 보통

의 행복감, 보통의 십대 정서를 누리면서 청소년기를 보내야 한다는, 아이들에 대한 평등한 가치를, 관념을 놓아서는 안 된다.

A가 그 짧은 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던진 메시지는 너무나 보편타당하고 당연한 어른들의 의무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우리도 이해받고, 살고 싶다.”라는 것이다. 그들의 소외와 고통에 침묵하지 않기를, 그들을 괴롭히는 혐오에 침묵하지 않기를 바라는 최소한의 외침이다.

아이들이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보호해달라는 이 메시지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제2, 제3의 A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들이 이제부터 시작할 일은 A로부터 시작된 성소수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어른이 되는 동안 굳어진 오래된 편견을 내려놓고 A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동안 세상이 익숙하게 혐오해왔던 성소수자로서의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그들의 용기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어도 학교 안 성소수 아이들에겐 살아갈 호흡을 트는, 충분한 시작이 될 것이다.

(선생님이 저의 카밍아웃을 먼저 말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내같이 나한테 먼저 밝혀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말, 멘트, 그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먼저 알려주려(중략).
어차피 상담할 때는 그 상담을 받고 있는 아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 상담 선생님을 신뢰하고 먼저 마음을 열고서 애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지 말고, 말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자신감도 많이 살고, 그게 가장 좋은 답인 거 같아요
<Q로 만드는 울타리 中 - 46쪽 '연우이야기'>

교육단신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 확산

교육부는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다음 12개 지역을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 및 발표하였다.

△서울(구로) △부산(연제) △인천(연수) △대구(수성) △대전(유성) △경기(안양) △강원(춘천) △충북(청주) △충남(논산, 당진) △전남(영암) △경남(고성)

미래교육지구는 민·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협력 사례를 만들어 지역의 교육력 성장은 물론 다른 지역에도 그 영향력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현재 21개 지구에서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신규 12개 지구를 포함하여 총 33개 지구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특별교부금 1억 원씩을 지원한다. 매년 연차 평가를 거쳐 재지정된 지구에는 최대 3년까지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지구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성장지원단'을 통해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공동협력센터를 구축하고, 학교-마을 간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지역 특화 협력사업 등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온 마을이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었다. 학생들이 삶의 터전인 자신의 마을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마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체험학습, 자유학년제 등과도 연계운영해왔다. 또한, 지역과 연계한 돌봄, 방과후학교, 마을학교, 마을기업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지역 단위 교육자치의 새로운 모형(모범)을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미래교육지구에서는 '우리동네 교육회의'(서울 구로), '청주형 마을교육자치회'(충북 청주), '우리봄내 동동(강원 춘천) 등 지역 내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 마을교육자치회 활동이 활성화된다. 아울러, '10분 이내 거거리 학습 공간' 구축(인천 연수),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경남 고성), '품안에(愛) 당진' 마을교육과정 개발 운영(충남 당진) 등 지역 단위의 교육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미래교육지구를 계기로 온 마을이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배움, 돌봄, 성장을 지원하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수립

정부는 지난 11월 16일(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Task Force) 및 민간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부처와 전문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계 및 교육계,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유연화한다.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설립 및 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첨단분야의 석박사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대학 간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을 마련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를 확대 공급하며, 혁신 인재양성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교육혁신의 우수사례를 확산시킨다.

둘째, 청년 취창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직업훈련을 정비한다. 대학생들에게는 입학시부터 진로교육을 의무화하여 진로지도, 교육훈련, 취업준비를 연계하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비전공자들의 디지털 교육을 돕기 위해 훈련비 지원범위와 민간 주도 디지털 훈련(K-Digital Training)을 확대하며, 전문기술인재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 AP제도, 범부처 협력 마이스터대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셋째,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반 특화 훈련을 추진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도 전국으로 확산한다. 또한, 대학 내 재직자 전담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성인학습자 바우처 활용을 확대하는 등 학비 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재직자 대상 스마트러닝플랫폼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대개선했 예정이다.

넷째, 정부 부처 간 협업 인프라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발표한 기존 정책을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정합성을 갖추어, 앞으로의 인재양성 전략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한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인재정책이 수립 추진되도록 개인 학습이력관리 체계를 도입하며 인력수급전망 전담기관을 지정해 고등교육통계조사를 고도화한다.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등 정부부처 협의체 간 협력을 통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본 방안이 앞으로 신기술·신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혜랑 기자 je_france@korea.ac.kr

제9회 전국 이종언어 말하기대회 개최

지난 11월 6일(토) '제9회 전국 이종언어 말하기대회'가 개최되었다.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엘리(LG)연암문화재단 대표 정창훈은 '제9회 전국 이종언어 말하기대회' 대상 2명을 포함한 전국대회 참가자 52명을 시상하였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학급, 상담(멘토링), 이종언어 말하기대회 등 다양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제9회를 맞은 전국 이종언어 말하기대회는 다문화학생의 이종언어교육을 장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사도 예선 대회를 거쳐 추천받은 52명의 다문화학생이 참가하여 한국어 어와 부모의 모국어(중국어, 러시아어 등 18개 언어)로 제시된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다문화학생이 가족·선호배와 짝을 이뤄 발표하는 특별무대도 두 팀 진행되었다. 초등부의 윤소정·윤하준 가족 팀은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중등부의 김혜민·최유진 선호배 팀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였다.

참가 학생 중 경상북도 부림초등학교의 마해주 학생과, 경기도 보령여고 블레스 학생이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초등부 대상을 수상한 마해주 학생은 꿈을 향한 첫걸음을 땀 이야기를 한국어와 몽골어로 발표하고, "이종언어 재능을 활용하여 꿈을 이루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나누었다.

중등부 대상의 영예를 안은 블레스 학생은 아버지와 함께 외국인 주민을 도운 경험을 이어나가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로계획을 한국어와 토고어로 발표하였다. 블레스 학생은 "오늘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함께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심사결과에 따라 금·은·동상(교육부장관상) 및 특별상(LG연암문화재단이사장상 및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상)이 수여되었다. 전체 참가 학생에게는 대회 이후에도 이종언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후속 프로그램은 '엘지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로, 2년 동안 진행되는 언어과정이다. 학생들은 1:1 화상 멘토링 상담, 글로벌 리더십 캠프,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대회 참가 학생들의 지도교사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여러분의 장점과 재능을 바탕으로 세계적 인재로 성장해달라."라고 당부하며, "교육부도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엘리 연암문화재단 정창훈 대표는 "한국어와 모국어 학습에 열정과 의지를 지닌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로 커가기를 기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미래교육 포럼



지난 11월 26일(금) 오후 4시, 운초 우선교육관 204호에서 제2회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포럼이 진행되었다. 미래교육포럼은 지난달 출범한 KU Center of FINE(Future Innovation for a New Education)의 중추적인 행사 중 하나이다. 미래교육포럼은 매달 한 번 개최되며, ‘미래’를 키워드로 각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학문적 동향을 살피고, 교육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포럼의 초청연사로는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가 초빙되었다. 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교육은 피드백이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2시간 가량의 강의를 진행했다. 해당 포럼에는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교원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줌(Zoom) 회의로 참석할 수 있었다.

행사는 김매이 연구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성일 교육대학원장은 “향후 미래교육포럼은 정기적으로 개최될 테니, 오늘 강연을 듣고 모셨으면 하는 연사를 추천해 주시거나, 강연이 아닌 토론과 같은 행사 방식

에 대해 건의해주셔도 좋겠다”며 강연장의 열기를 북돋웠다.

Ⅰ 인간은 사회적으로 이미 피곤하다

김 교수는 “필드에 나가 일하는 인지심리학자로서 ‘피드백 사이언스’의 효과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며, “피드백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대해 공유하고자 오늘 강연을 맡았다”라는 말로 운을 띄웠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이제는 ‘비대면’ 소통과 만남이 뉴노멀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미래학자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유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8년, 전 세계의 미래 선행기술을 연구하고 촉망받는 신산업을 소개하는 ‘넥스트 컨퍼런스 2018’에서의 폐막 강연 주제가 ‘비대면 사회’였다는 일화를 전했다.

김경일 교수에 따르면, 대면 만남이 선호되지 않는 뉴질랜드에서의 사회적 만남 횟수를 1로 잡을 때, 한국은 27에서 28 정도의 수치가 도출된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문화적으로 대면 만남이 일상화되었다 못해 포화 상태이다. 그러나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

의 뇌는 이토록 잦은 대면 만남을 소화해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애석하게도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인간은 24시간 사회활동을 요구받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 흔히 ‘번아웃’은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직무 스트레스를 요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에 능숙한 사람이 겪는 번아웃의 원인은 종종 과도한 회의 횟수와 말하는 시간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IT 기술이 발달하면 대면 소통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데 선구적으로 활용한다. 김 교수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잦은 대면 소통은 ‘사회적 번아웃’을 야기하고, 이에 물리적 및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조차 비대면을 선호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한다.

Ⅱ 비대면 소통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의 급성장

김 교수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지도, 혁신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나 비약적인 성공을 거둔 ‘우버’(Uber)에 주목해 비대면의 절약성에 열광하는 대중의 심리 기제를 읽어낸다. 우버의 특징은 기사에게 승차한 고객의 목적지와 경로 설정을 자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면 의사소통량을 기존에 비해 최대 1/3까지 줄여준다는 것이다. 비대면으로 의사소통이 해결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인 고객은 실시간으로 기사의 위치를 피드백받는다. 이러한 피드백 시스템은 고객이 서비스를 게임처럼 흥미롭게 느끼게 한다. 김 교수는 ‘게임’과 ‘노동’의 차이를 행위에서 찾지 않고, ‘피드백’의 유무로 구분한다. 즉, 단순히 반복되는 행위에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으면 노동 또는 지루한 공부가 되지만,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지면 게임 혹은 즐거운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Ⅲ ‘공존의 물’이 깨질 때 ‘혁명’이 발생한다

김 교수는 무엇이 ‘혁명’의 분기점을 만드는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공존의 물’이 깨질 때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본다. 호모사피엔스의 역사 이래, 비대면으로 더 많은 피드백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 학교에 나가야 지도와 평가를 받고, 의사를 만나야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작금에서는, 비대면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며 사회적 에너지를 적게 투입하면서도 더 많은 피드백이 주어진다. 이에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분기점은 ‘대면 상황에서 피드백을 더 많이 받는다’는 공존의 물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통찰한다.

Ⅳ 세상을 바꾸는 피드백

김 교수는 자칫 사소해 보이는 피드백이 사람들의 인지와 심리적 기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는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지하철 배차 안내 방송이 “열차가 승강장 안으로 들어옵니다”라는 언어적 메시지로 주어졌던 예전, 사람들은 열차가 들어오는 터널 끝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모니터 화면을 보아 다음 열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언어적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아도 충분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렇게 즉각적이고 세분화된 피드백의 긍정적 효과성은 사회 전반에서 경험할 수 있다.

대한치과협회의 요청으로, 김 교수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치료 비용 및 병원 시설 등의 제반 조건이 모두 동일한데 매출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치과의 경우, 치료 과정 중 환자에게 단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는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3초 후에 드릴 들어가요.”, “10초 정도 시립니다.”, “치료 절반 정도 지났어요.”, “이제 30초만 더 참으시면 돼요.”와 같이 치료의 시작 과정에서부터 완료될 때까지 8회에서 10번 정도의 세부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환자들은 잦은 피드백으로 인해 고통을 적게 느끼고, “이 병원은 치료를 잘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 심지어 외부에서 주어지는 피드백을 받아들이거나 고려하는 데에 대개 수동적이다. 더구나 인간은 예기치 못한 성공을 거두거나,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다가오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미래에는 자신의 성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고, 자신이 성공한 방식이 근미래에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직전에 큰 성공을 거둔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김 교수는 설파한다.

미래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평균점에 수렴하지 않는, 틀을 깨는 새로움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다. 교육의 방법적인 면에서 학습자가 이룩한 결과보다는 사용한 방법에 대해 인격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 상호교류적이고 지속가능한 배움의 원동력이 된다고 김 교수는 제안한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신문 문화평

셰아 스타디움에서 애비 로드 스튜디오로



셰아 스타디움(Shea Stadium)에서 공연하는 비틀즈

© Rolling Stone

리와 비틀즈의 비교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 투어의 총 수입은 약 100만 파운드였고, 1964년 미국 전역에서 집계 및 추정된 비틀즈 관련 상품 매출액은 5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어진 약 2년간은 투어의 시기였다. 1965년 8월 다시 한 번 미국 투어가 시작되었고, 비틀즈 스스로 자신들의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65년 8월 15일 뉴욕 셰아 스타디움(Shea Stadium)에서 개최된 공연은 55,000여 명의 팬이 입장하고 1회 수입으로 30만 4천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당시까지 대중음악계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다(이 공연은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일본, 필리핀 등 전 세계 투어도 진행되었고, 여기에서의 열기 또한 미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 시기 문제가 된 존 레논의 발언(“지금 비틀즈는 예수보다 인기가 많다(more popular than)”)는 놀랍게도 어느 정도 사실에 근접한 듯 보였기 때문에 보수적인 미국 남부 팬들의 격렬한 분노를 촉발한 것이었다(존 레논은 이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 이어진 남부 지역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비틀즈는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고, 대중음악계에서 비틀즈가 갖는 위상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것이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품(아이돌)’으로서 그러했다는 점에서 비틀즈 멤버들은 깊은 피

로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멤버들을 괴롭게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이들은 공연장 외에는 오로지 이동 차량과 숙소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공연장에서는 몰려든 군중, 언론, 경찰의 무리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일상에서는 어딜 가나 그들을 알아보는 팬들을 따돌리기가 불가능했다. 이들은 투어 중간에도 꾸준히 신곡을 발매했는데, 이는 이동 중에, 혹은 공연 대기실에서 급하게 쓴 것들이었다(물론 발매와 동시에 미국과 영국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둘째, 공연에서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다. 조지 해리슨은 공연장에 몰려든 수 만 명의 관객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틀즈를 ‘보기’ 위해서 온 것 같았다고 회고한다. 팬들의 함성 소리에 연주 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었고, 멤버들의 배치도 너무 멀어 서로의 합을 맞추기 어려웠다. “75%의 선전, 20%의 머리 모양, 5%의 신나는 사랑 노래”(『해럴드 트리뷴』)라는 비야냥은 쏟아지는 찬사 앞에 곧 빛을 잃었지만, 정작 멤버들은 전 세계적 비틀즈 열풍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5%의 비중은 되는지 회의적이었다.

1966년 8월 샌프란시스코 공연을 끝으로 발표된 투어 중단 선언의 표면적 이유는 ‘더 이상 장비 등 공연의 여건이 밴드가 이룬 음악적 발전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

지만 실제 원인은 전술한 염증이었다. 이에 더해 이듬해 매니저 브라이언 엡스타인이 사망함으로써 비틀즈 역사의 한 시기가 종결된다. 그의 사망 경위, 그리고 비틀즈와의 관계가 죽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모두 다루긴 어렵다. 그보다 중요한 건 조지 해리슨의 말처럼 투어 중단과 브라이언의 죽음이 “하나의 장의 끝”을 알리는 장면이라는 점이다.

이제 비틀즈의 각 멤버들은 너무나 빠르고 강하게 자신들을 뒤에서 떠밀던 어떤 힘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다시 점검해야 했다. 조지 해리슨은 가장 먼저 인도 사상과 종교에서 그 길을 찾으려 했고,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는 잠시 약물에 빠지기도 했다. 물론 전 세계적 상품이 되어 갈수록 서로 외에는 잘 믿지 않게 된 멤버들은 이 모든 것을 함께 했다. 이들은 아주 소수의 지인을 제외하면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은 채 EMI 제2스튜디오에 침거한다. 아이돌 비틀즈의 무대가 전 세계에 마련되어 있었다면, ‘뮤지션’으로 각인될 제2기의 무대는 오롯이 훗날 ‘애비 로드(Abbey Road)’ 스튜디오로 이름을 바꿀 이 녹음실이었다.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교육과 스승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신 박에스더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올해의 스승상' 수상으로 이루어진 본지와 인터뷰(2016년 10월호)에 이어 또다시 박에스더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교사가 맞출 수 있는 최고의 상'이라는 박에스더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에스더
홀트학교 교사

Ⅰ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홀트학교에서 26년째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박에스더입니다. 초임 후 16년간 유·초·중·고등학교 학급담임을 했습니다. 2012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면서 학급 담임과 예술교육부장을 겸하다가 이듬해부터는 초등 음악 수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사를 꿈꾸는 여러분을 지면으로 만나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학생에게 인정받는 것이 교사가 맞출 수 있는 최고의 상인 것 같아요.

Ⅱ 선생님께서는 장애 학생들의 음악적 소질 개발에 특히 관심을 두고 계시죠.

보편적으로 알고 있듯이 음악은 태아를 움직이게 하고 태아의 뇌 속에 기억으로 저장되는 놀라운 힘이 있지요. 그래서 장애의 유무를 떠나 음악은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악보의 구조는 다분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이지만 악보 밖으로 나오는 음악은 감성적이고 예술적이죠.

사람이 태어나면서 무상으로 받은 최고의 악기는 목소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와 학교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음악, 합창이 주는 놀라운 힘과 함께 노래할 때 느끼는 행복감을 맛보면서 자랐듯, 우리 학생들도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했어요. 또, 합창이 우리 학생들의 언어발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싶었고요. 노래에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있지요.

Ⅲ 특별한 관심과 열정의 계기가 있나요?

2005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음악교사 연수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감사분의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합창의 화성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다가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없는 홀트학교 학생들은 안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좀 울컥했어요. '안 된다'라는 말은 제 안에 잠자던 열정을 깨웠지요. 그리고 그 해, 제가 지도하던 합창부 친구들에게 그 열정을 마구마구 쏟아부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침 근처 중학교에서 음악교사인 친구가 합창부를 지도하고 있었고 바로 옆 초등학교 합창부 선생님을 알게 되어 학교 강당에서 장애·비장애 친구들이 함께하는 '홀트학교 개교 30주년 합창 축제'를 열었어요. 함께 했던 선생님들이 즐겁게 노래하며 음악을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의 순수함에 반해 찬사를 보내주셨어요. 저 또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음정과 박자가 음악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죠. 음악을 듣고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몸으로, 표정으로, 소리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치 예술가 같았어요.

Ⅳ 그 경험이 '꾸오레 합창단' 창설로도 이어진 건가요?

2014년부터 학교 특성과 사업의 일환으로 중창단을 운영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만 해도 잠잘 시간이 모자라는 때였죠. 그러다가 문득 몇 년 전 앙클롱(밤벨)반 학생들을 정기공연에 초청해 주셨던 지역사회 합창단 '꾸오레'가 생각났어요. 단장님께 무작정 전화 드려서 재능기부를 하실 분이 계신지 도움을 요청했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단장님을 포함하여 단원 5명이 자원하셨고 지휘자님도 함께하시겠다고 해주셨어요. 중창단의 활성화를 원하셨던 교장선생님께서도 지역사회 합창단과 협력하여 본교 합창단 창단에 힘을 실어주셨어요. 이탈리아어로 '마음'을 뜻하는 '꾸오레'와 '꽃'을 뜻하는 '꾸오레'가 함께하게 된 것이죠.

Ⅴ 그보다 이전부터는 '에그리나' 오케스트라도 맡고 계셨죠.

네. 오케스트라 창단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10월, 본지와 인터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악기 연습과 공연 활동은 음악적인 면보다 학생들의 다른 면을 더 많이 발전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이 연주 후 쏟아지는 박수와 잘했다는 칭찬, 격려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어요.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자폐학생들의 대부분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퇴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힘들어도 꾸준히 첼로를 한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Ⅵ 장애 학생을 위한 숫자악보집도 만드셨죠.

오케스트라 창단 전부터 운영하던 앙클롱(밤벨)반에서 악기에 적혀 있던 숫자음을 노랫말 악보나 오선악보에 적어주었더니 처음 대하는 노래도 바로 건반악기로 연주했어요. 악보만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맘껏 연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숫자악보를 만들게 되었어요. 중·고등학교 9명을 대상으로 '숫자악보를 활용한 지휘활동이 지적장애 중·고등학생들의 가락악기 연주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홀트학교, 2011)라는 사례연구도 했죠. 학생들을 지도하며 개발한 숫자지휘는 오케스트라 창단 이후 현악기, 관악기 연주에도 적용하여 보다 쉽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Ⅶ 숫자악보 지도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에서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G(솔)현은 숫자지휘 '5'로, 가장 높은 소리를 내는 E(미)현은 숫자지휘 '3'으로 보여주며 개방현을 구분하게 했어요. 앙클롱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같은 소리를 내는 현을 찾아 소리 내게 하면서 소리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었죠. 처음부터 멜로디로 연주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리듬과 멜로디에 주변환경과 상황에 적절한 말 리듬을 넣어서 반복되는 소리들을 기억할 수 있게 지도했어요.

Ⅷ 음악지도법도 집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창단 이후 3년간 함께 하며 악보 없이 숫자지휘로 신통방통하게 연주하는 학생들을 보시고 오케스트라 교육의 효과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시는 김현미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셨지요. 다른 장애학생들과도 공유를 하면 좋겠다고요. 하

지만 바쁜 일정으로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고 숫자지휘와 숫자악보를 병행한 지도법은 2018년에야 '에스더 숫자지휘'란 이름으로 특허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집필을 더는 미룰 수 없어서 시간을 쪼개고 정리를 하게 되었죠.

Ⅸ '장애학생 음악교육연구회'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2013년, 오케스트라 운영학교로 선정되던 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홀트학교 에그리나 음악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어요. 2017년에는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기관에 선정되면서 명칭을 '장애학생 음악교육 연구회'로 바꾸고 어깨동무 음악회를 주관하여 개최하면서 해마다 학생들의 음악적 역량이 놀랍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학생 음악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20여 명의 본교 교사와 타 학교 교사, 예술강사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Ⅹ 끝으로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상 후에 어떻게 하면 그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상을 두 번째 받고 보니 처음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맡겨진 일들을 했을 뿐인데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셨던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교육계의 영원한 진리처럼 교사의 시선이 교사의 질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곳도 아닌 학생을 바라보면 교사는 학생과 소통하게 되고, 교사의 진심이 학생에게 닿아 교사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이 되겠지요? 여러분이 바로 그 교사가 될 것이고 저 또한 학생에게 진심인 교사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The Korea Teacher's Award 제10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

일자 2021년 5월 28일 | 장소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대회의실

박영주 박성수 이동엽 이성남
윤미정 이등문 이금희 김성삼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부



교육과 학문

인간의 행동은 타율 도덕인가, 자율 도덕인가?



한지윤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경인교육대학교 강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대에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은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억지로 따르는 행위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행위인가?

배워서 아는 바가 있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참으로 알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로 인해 주회는 배워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논한다.

한편, 주돈이를 수용하는 주회는 사람이 마음 밖에 있는 이치를 기준으로 두어서 몸을 수동적으로 통솔한다고 언급한다. 마음 밖에 있는 이치를 탐구해서, 지각한 대로 몸을 피동적으로 통솔하는 일은 타율 도덕이다.

또 다른 한편, 이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회는 마음에 둔 리(理)를 자각한 대로 몸을 능동적으로 주재한다고 논한다. 이처럼 배우면서 이치를 자각해 자발적으로 몸을 통솔하는 일은 자율 도덕이다.

주돈이의 태극론을 수용하는 주회는 마음의 근원인 천리(天理)를 지각하면 앎을 준거로 삼아 자신의 몸을 제어한다고 일컫는다. 몸을 통솔하는 표준은 마음 외부에 있는 천리이므로, 사람은 마음 밖에 있는 표준을 잣대로 해서 자신의 몸을 주재한다. 그리고 이치의 근원이 마음 밖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제재하는 힘 또한 외부에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죄를 벌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 자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억지로 선행을 하려고 애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멈추지 않아서 교사로부터 제지를 받는 학생

은 외부에 있는 도덕적 기준을 따라 강압적으로 몸을 주재할 수 있다.

외물에 갇힌 이치를 끝까지 궁구해 보아서 그것과 일치하는 내면의 성(性)을 하나로 꿰뚫어 본다는 정이천의 견해를 수용하는 주회는 격물(格物)에 관한 논의를 정돈한다. 천리를 근원으로 하는 성(性)을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은 마음의 성(性)을 준거로 해서 주체적으로 몸을 주재하는 힘을 본래 갖추고 있다. 자율 도덕의 근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물을 볼 때마다 저절로 '지각 작용'이 일어나면서 학습자는 사물의 이치를 마음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다. 둘째, 학습자는 지각 능력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성(性)을 깨달으면 아는 바를 준거로 하여 '몸을 주체적으로 통솔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셋째, 마음으로부터 저절로 '성(性)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에서 선한 기미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진실하게 선호'하면서 몸을 자율적으로 주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가 오는데도 길을 건너려 하는 어린아이를 본 자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면으로부터 저절로 들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뛰어가서 도와준다. 이와 같이 학습자는 외물을 접할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선한 기미를 좇으면서 몸을 주체적으로 능숙하게 제어한다.

맥락에 따라 주회는 마음에 둔 성(性)에 의거해서 몸을 능동적으로 주재한다고 논급하므로, 이는 자율 도덕이다. 다른 맥락에서 주회가 마음 밖에 있는 태극(太極)을 표준으로 삼아 수동적으로 몸을 통솔한다고 언급하므로, 이는 타율 도덕이다.

그러나 주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율 도덕과 타율 도덕을 하나

로 연계해서 꿰뚫어 본다. 타율 도덕의 표준인 태극(太極)과 자율 도덕의 표준인 리(理)가 일치하기 때문에, 타율 도덕과 자율 도덕을 하나로 꿰어 보아도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친구를 괴롭히는 행위를 강압적으로 제지하는 선생님을 본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에게 측은한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을 내면으로부터 자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주관적으로 측은한 마음이 나오는 본체와 객관적인 표준으로서의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마음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재해준 대로 따르는 행위와 스스로 깨달은 바대로 주체적으로 몸을 통솔함은 전부 덕행과 연관된 동일한 일이다.

주회의 학(學)은 천리를 근원으로 하는 성(性)을 참으로 자각했을 때, 앎을 준거로 몸을 통솔함이다. 주돈이를 수용하는 주회의 학(學)은 외부에 있는 천리(天理)를 알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 몸을 수동적으로 주재함이고, 이는 타율 도덕이다. 또한 이정을 수용하는 주회의 학(學)은 마음에 둔 리(理)를 아는 대로 몸을 자발적으로 주재함이고, 이는 자율 도덕이다. 실제로는 마음에 둔 성(性)의 근원이 곧 천도(天道)이며 몸을 주재하는 기준은 결국 하나여서, 천리에 초점을 두면 그것은 타율 도덕이고 성(性)에 초점을 두면 그것은 자율 도덕이다.

마음 밖에 있는 이치와 마음에 둔 본성은 동일하다. 그리고 마음 밖에 있는 이치를 억지로 좇는 일과 능동적으로 마음에 둔 성(性)에 의거하는 일은 모두 동일한 이치를 좇는 한 가지 일에 불과하다. 물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따르느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좇느냐와 같이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는 덕행은 한 가지 이치를 좇는 행위라는 점에서 한 가지 일이다.

마음 밖의 이치와 마음에 둔 성(性)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 밖의 이치를 수동적으로 좇는 타율 도덕과 마음에 둔 성(性)을 능동적으로 따르는 자율 도덕은 상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논자는 타율 도덕으로 보는 입장과 자율 도덕으로 보는 입장을 천리에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 마음의 성(性)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른 해석의 차이로 본다.

주회가 지향한 바는 타율 도덕에서 자율 도덕으로 전환하여서,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사람은 마음 밖에 있는 이치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동적으로 따르는 단계를 넘어, 의식하지 않고도 마음 밖의 이치와 일치하는, 마음에 둔 성(性)을 자연스럽게 좇는 단계로 들어설 수 있다. 타율 도덕과 자율 도덕은 서로 상충하지 않으므로, 근본 법칙에 억지로 순응하다 보면 사람은 능동적으로 좇는 방향에 익숙하게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대에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를 억지로 쓰는 행위는 타율 도덕에 속한다. 그리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행위는 자율 도덕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억지로 마스크를 쓰는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마스크를 쓰든, 마스크를 쓰는 행위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리고 실제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지만, 이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스스로 쓸 수 있다.



교육현장 노트



신해림

국어교육전공

된 나는 지역이 먼 학교를 포함해 전화 20통을 돌린 결과 감사하게 모교로 4주간 교생실습을 갈 수 있었다.

그렇게 천방지축 시작된 교생 생활은 2학기 교생이라는 특수함 때문인지 홀로 하게 되었다.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제한 속에서도 실습하는 4주 중 3주는 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 키가 큰 필자에게 키와 키 크는 법을 묻는 질문을 제외하고 교생실습을 하며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였다. 나는 학교라는 공간이 예부터 좋았다. 배우고 가르치는 희망적인 현장 분위기가 좋았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인격적으로 닮고 싶어 하던 학생이었다. 편지를 나누는 선생님의 따듯함이 좋아서 나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교생실습을 시작하며 지도 선생님께 "학교 선생님들의 인상이 모두 선하고 따뜻하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선생님의 인상이 험악하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으실걸요"라고 하시며 "선생님들의 인상이 좋은 이유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에너지 때문"이라고 대답하셨다. 처음엔 그 말씀에 긴가민가했지만 복도에서 웃으며 밝게 인사해주는 학생들, 작은 것에도 까르르 웃고 떠드는 학생들

사랑해, 또 보자!

을 보며 누군가 입가를 당기듯 행복했다.

나는 중학교 1학년 1반부터 7반까지 한 반당 7번씩 수업했다. 그 중 4반 첫 수업을 마쳤을 때였다. 창가 자리 맨 앞에 앉은 여학생이 나를 불렀다. "선생님, 그래서 질문이 있는 걸까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돌린 순간 "사랑해요"라는 말과 손 하트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때 흔히 말하는 '심쿰'을 느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러곤 정신을 바짝 차려 "선생님도 사랑해"라고 갑작스럽게 다가온 사랑의 손뼉에 게 응대했다.

교생실습을 떠올리면 많은 행복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추어져 있지만 유독 이 조각은 빛나서 자주 들추어보고 싶고 나를 돌아보게 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흔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말하기를 기다리면서 아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걸 그랬죠. 이제 어떻게 내 맘 표현해야 하나'라는 성시경의 노래 가사처럼 정말 딱 맞는 로맨틱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순간은 자주 찾아오지 않을뿐더러 언제 찾아올지도 모른다.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해치는 것도 아니며 나약함을 내비쳐 불리함을 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저하고 있는 걸까. 그날 한 학생의 한 마디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말이 떠오르던 순간이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이, 단어를 하나 더 배우고 이론을 하나 더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학생들을 전인적인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선생님의 중요한 책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의 시간표가 흐르면 청소를 마치고 교실 커튼을 내리며 학생들에게 "잘 가, 내일 보자"하고 인사했다. '내일 또 교실에서 만나자'는 인사가 내게 묘한 안정감과 감사함을 주었다. 그러나 교생실습이 하루하루 저물어갈 때는 마지막 날 '내일 보자'라고 말할 수 없음에 서글퍼지기도 했다. 그래서 실습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인사를 해야 할까 미리 고민했던 것 같다. 비록 당장 내일은 보지 못해도 언젠가 다시 웃으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다. "사랑해, 또 보자!"

교생실습 기간과 그 이후에도 동네 식당과 길가에서, 또는 메신저로 학생들을 마주치곤 한다. 학교 밖에서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할 것 같아서 선생님의 길은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주기 위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야겠다.

요즘따라 유독 학생들의 지지고 볶는 생활 속에 학교다운 울림이 있음을 느낀다. 학교에서 생기 넘치게 학생들과 다시 마주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짧은 글을 마친다.

"가을에 교생실습을 간다구요?"

"왜 안되나요?" 이미 교생실습을 다녀온 선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나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통상적으로 4, 5월 벚꽃 피는 계절에 교생실습을 간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학교현장 탐방

‘영화교육 시범연구학교’로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영도초등학교



최병인

영도초등학교 교사

영화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리터러시 함양을 통해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역량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영도초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도초등학교 교사 최병인입니다. 저는 올해 5학년 3반 담임교사 및 영화교육 시범학교 운영주무를 맡고 있습니다. 본교는 올해로 113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본교가 위치한 영도는 부산 최남단에 자리하여 지리적·교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길목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개항과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겪으며 외국인과의 교역이 활발한 외교장소로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 역사 속에서 일제 한글말살정책에 항거하는 민족학교로 출발하여 3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근대 역사와 함께 숨 쉬며 '주민의 삶이 곧 영화인 곳'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영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시작하였고, 그 역사적인 영화교육의 첫 발걸음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영도초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교는 건강하고 바른 품성을 지닌 창의적인 어린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영화교육 중점학교로, 2021년에는 영화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전국 최초라는 선구자적인 역할에 대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며 영화교육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종합예술인 영화교육이 학생들의 협업 능력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 즉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온 힘을 쏟았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 시간에 국한된 영화교육이 아닌 교과 재구성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하였고,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영화교육 연간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의 영화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육, 영화감상·이해·제작 교육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영도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교육 시범연구학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요청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공모 및 심사를 통해 본교가 전국 최초 영화교육 시범연구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영화교육 표준안」을 적용한 영화교육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영화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 이해·감상·제작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영화 리터러시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도 C·I·N·E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내 삶의 주·인·공 도기’를 전체 목표로 설정하고, 인간의 삶을 이해하며 예술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를 소유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초등학교현장의 영화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영화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한 지난 2년의 경험과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영진위로부터 1년간 지원금 천만 원과 태블릿PC 기반의 영화제작 장비세트도 지원받았습니다.

영화교육의 주요 내용은 ‘감상, 표현, 생활화’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감상’ 영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영화를 감상하며 주제와 이야기, 이미지를 탐색하고 문화·예술적 가치를 이해합니다. ‘표현’ 영역에서는 주변의 일상과 세계를 바라보고 영화적 소재로 상상하여 완성된 이야기로 확장하며, 글로 적거나 사진 혹은 동영상 촬영을 통해 이미지로 표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화’ 영역에서는 다양한 영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일상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본교에서는 시범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영화교육 워크북 ‘내 삶의 주인공 도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이 워크북은 「초등학교 영화교육 표준안」을 바탕으로 표현, 감상, 생활화의 내용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 스스로 영화 감상을 하거나 장비를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년군별 수준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나 이해하기(1~2학년), 타인 이해하기(3~4학년), 세상 이해하기(5~6학년)를 주제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상황 속 온라인수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법교과 교육 등이 가능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교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는 자료 제작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회의를 거듭하여 학생들에게 영화를 통한 예술교육이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화교육 중점과정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Z세대라고 불리는 현재 초등학교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자, 유튜브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와 유튜브만으로도 소통할 수 있으며, 뮤직비디오와 같이 파편화된 동영상의 스토리도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영상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걸맞은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화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 교육 중 문화예술교육, 메이커교육, 영화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문학 교육 등은 교과 내용 요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영화 리터러시 함양을 통해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역량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영화교육 시범연구학교를 운영하며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영화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한 부분으로 일부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었고, 일부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나 교수·학습 방법 등에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해당 교과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로 제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예술 강사 등 과전에 기초한 영화 제작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며, 교육적·체계적 토대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웠습니다. 또한, 영화는 상업성과 오락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학부모님들 중에는 교육의 대상이나 교육 자료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인식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화교육 시범연구학교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많은 학생이 다양한 영화·영상을 접하며 즐기고 있고, 과거에 비해 손쉽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환경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영화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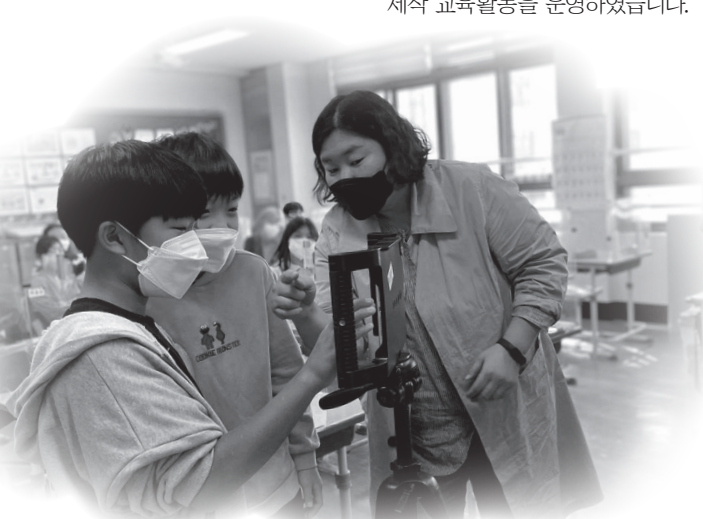
육은 인성교육, 진로 교육 등의 자료로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기존의 교육체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리적인 공간과 교육만을 고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교육과정의 혁신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비대면 교육의 흐름과 함께 본교에서 운영한 영화교육은 교육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교육활동이 되었습니다.

영화 콘텐츠를 활용하고, 영화를 직접 제작하고, 제작한 영화를 공유하는 활동은 다양한 교육활동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활동입니다. 흥미도가 높기에 교육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학부모님들 또한 학생들의 결과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많은 경로가 생기면서 신뢰감이 쌓였습니다. 얼마 전 실시한 ‘영도 MAGIC 영화제’에서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학생들의 작품을 공유하고 나누었는데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행사 중 가장 관람률이 높은 분야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하는 문화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영화교육의 기회는 부족하다 보니 영화에 대한 소비자로서 수동적인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영화교육을 ‘영화 감상 교육’과 ‘영화 창작 교육’으로 분리해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화교육을 영화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한정해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의 영화교육은 영화 감상 및 비평교육과 영화 만들기 교육을 통합한 영화 리터러시 교육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공부하는 예비 선생님들께서도 ‘영화 교육’에 더욱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영화’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교육활동을 만들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예향 기자 je_fragrance@korea.ac.kr



문화 탐방

이번 문화탐방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의 작가상 2021>을 소개합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2012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해 온 대표적인 미술상입니다. 해마다 동시대의 미학적,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역량 있는 시각예술가 4인을 후원작가로 선정 후 신작 제작 지원과 전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시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2차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1인을 선정하죠. 올해는 김상진, 방정아, 오민, 최찬숙 작가가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명의 작가가 소개하는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 전시장소: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전시기간: 2021.10.20.(수)~3.20.(일)
-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수요일, 토요일은 야간개장으로
오후 9시까지 관람 가능
(1월1일, 설날 휴관)
- 관람연령: 제한 없음
- 관람요금: 4,000원
- 전시문의: 02-3701-9500

재난의 시대를 관통하며, 재인식한 현실을 반영한 <올해의 작가상 2021>

2012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올해의 작가상>이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올해는 김상진, 방정아, 오민, 최찬숙이 후원 작가로 선정되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전시 중이다. 네 명의 작가는 조각, 설치, 회화, 영상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왔다. 김상진과 최찬숙은 사운드와 영상 설치 작업을 통해 관객들의 공감각을 일깨우고 작품에 몰입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오민과 방정아는 일상의 순간과 공간을 포착함으로써 시간이 갖는 속성을 새롭게 일깨운다.

I 김상진 <비디오 게임 속 램프는 진짜 전기를 소비한다>



김상진 작가는 영상, 설치, 조각 등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활용해 '인간과 세계'란 주제를 동시대적 관점에서 다뤄왔다. 대형 영상 설치 작품과 사운드, 조각 작품으로 구성된 신작 <비디오 게임 속 램프는 진짜 전기를 소비한다>는 소셜 미디어, 가상화폐, 메타버스 등의 가상 경험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부터 야기된 현상을 다룬다.

작가는 꾸준히 연구해 온 인간의 인식체계에 대한 의구심과 불완전성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새로운 가상 세계를 탐색해보라고 제안한다. 현실의 부조리함에 의구심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시각화한 작업을 통해 동시대 예술의 현재를 조명하려 하는 것이다.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신작 <로파이 마니페스토_클라우드 플렉스(Lo-fi Manifesto_Cloud Flex)>(2021)는 경이로운 순간으로 구축되는 하이파이(Hi-fi, high fidelity)로서의 가상이 아닌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실을 시각화한 작업이다.

전시장 왼쪽 구석의 <크로마키 그린>(2021)은 오늘날 초록색이 지니는 이중적 속성을 꼬집는 작품이다. 크로마키는 색조의 차이를 이용하여 어떤 피사체만을 뽑아내어 다른 화면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경이나 인물을 촬영한 뒤 어느 하나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사라져야 하는 부분이 주로 초록으로 대체된다. 작가는 도시와 사회라는 인공적 환경에서 자연성을 상징하는 초록색과, 컴퓨터 그래픽 작업의 편의를 위해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들이 지닌 초록색의 역설에 주목한다.

작가는 가상의 디지털 경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모습을 작품으로 재현한다. 그러면서 실제와 가상의 경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전시장 전체를 활용한 영상, 사운드 설치 작업은 관람객을 유기적 경험의 공간으로 들여놓는다.

I 방정아 <흐물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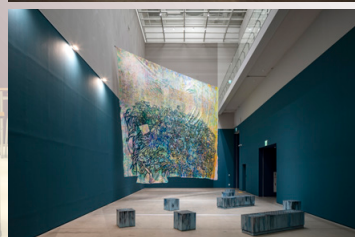


방정아 작가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본인이 생활하고 작업하는 삶의 터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회화 작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자신을 둘러싼 일상적이고 친숙한 동시대 풍경을 작품 속으로 옮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이면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관객들을 작가의 '지금, 여기'로 초대하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일상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사건을 소재로 한 <흐물흐물>을 소개한다. 소재가 된 것은 우리 주변의 일상적 장소 그리고 일상에 드러나지 않던 이야기와 사건이다. 작가의 작품은 그 소재들을 관통하는 시간과 역사의 흐름이 만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이면에 있어 알기 어려웠던 과거의 시간과 위기를 가시화함으로써 우리 주변과 삶을 다시금 바라보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작가는 전시장을 두 공간으로 나누어 체제, 제도, 관계, 권력 같은 견고한 대상의 모습을 담은 '한국의 정치 풍경' 섹션과 무너져서는 안 되는 생태계 모습을 투영한 '플라스틱 생태계' 섹션으로 소개한다. 때문에 하나의 주제 속에서도 섹션마다 이야기하는 현상은 다르다.

이때 작품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거대 권력의 움직임과 그것이 일상과 마주하게 되는 매개체로서 역할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지금, 여기'를 다시 바라보게끔 제안한다. 작가는 자신을 둘러싼 일상의 풍경이자 복잡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대형 회화 작품으로 선보이고, 관객을 자신의 '지금, 여기'로 편입시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과 시선을 공유한다. 그러면서 주변에 존재하는 위기의식과 드러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라고 말을 건넨다. 그리고는 개인과 거대한 권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기감에 관해 이야기를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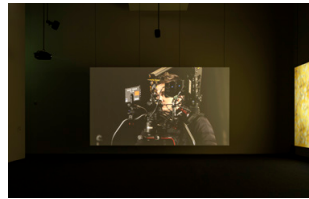
방정아, '흐물흐물' 전시 전경, 2021. 사진 홍철기

I 오민 <헤테로포니>



오민 작가는 음악, 사운드,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간의 속성과 성질을 실험한다. 작가는 감각의 영역을 확장하고 시간에 대해 탐구하고자 공연 예술과 시각 예술에서의 시간성과 움직임에 주목한다. 빛의 성질을 연구하고 시간과 시간 사이의 균열, 완전과 모순 사이를 횡단하는 신체적 사유를 파고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의 통제, 구조, 조형적 실험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을 발전시켜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헤테로포니(heterophony)>를 선보인다. '헤테로포니'는 다성 음악의 일종이다. 하나의 선율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연주할 때 각 연주자마다의 선율이 한데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는 음악 용어다.



신작 <헤테로크로니의 헤테로포니>(2021)는 시간을 재료와 형식으로 구성하고 시간 예술이 발생시키는 이미지와 관계에 관한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던진다. 작가에게 있어 작품의 형식과 구조는 완벽한 통제와 탐구를 통해 구성되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장르와 매체를 넘나들며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도구로도 작동한다. 이번 전시는 5개의 화면과 입체적인 사운드 설치 작업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이미지와 소리뿐만 아니라 빛과 신체 그리고 동시적 순간의 공감각적인 경험을 제안한다.

작가는 전시장에서 관람객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이미지를 경험하는지, 그 경험이 관람객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시각 예술에서 재료와 형식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문한다. 전시 공간이 공연 무대이자 실험실이 되는 셈이다. 이곳에서 관람객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한편, 한 공간에서 여러 명이 동시간을 감각하고 사유하는 헤테로포니적 순간을 경험한다.

I 최찬숙 <큐빗 투 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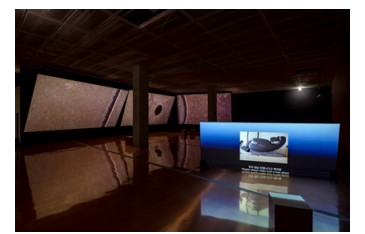
최찬숙 작가는 이주, 이동, 공동체를 주제로, 자신의 위치와 존재에 관한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여러 형식을 통해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몰두해온 '밀려난 사람들과 남겨진 이야기들'이란 주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개인의 기억과 역사를 이루는 땅과 몸 자체를 바라본다.

작가는 오랜 이주 생활을 하며 자신이 처한 위치와 존재를 다룬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로 선보여 왔다. 어딘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그들이 남긴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았다. 정신적 이주와 물리적 이주, '땅과 터전'을 기반으로 한 토지 소유 문제에 관심을 키워 온 것이다. <60호>(2020)에서는 군사 경계 지역에 위치한 선전용 마을 양지리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장소에 떠도는 이야기와 소유를 둘러싼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신작 <큐빗 투 아담(qbit to adam)>(2021)에서는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땅과 몸, 그리고 소유에 대한 작가의 오랜 성찰을 담았다. 과거 광산 채굴에서 오늘날 가상화폐를 위한 채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노동과 물질 소유의 역사를 파헤치는 데서 작품이 시작된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상과 사운드를 통해 인물들이 발생시키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3채널의 영상 속 서로 다른 서사가 공간에서 합쳐지고 분리되면서 서로 간의 관계도 재정립된다. 동시에 전시실 바닥 전체에 설치된 구릿빛 표면에도 투영되며 보는 이에게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다.

작가는 우리 앞에 있는 가상공간과 디지털 시스템이 기존의 서사와 어떻게 만나 물리적인 감각을 일으키는지, 이러한 공간에서 새롭게 감지되는 감각과 존재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네 명의 작가는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라는 재난의 시대를 관통하며,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작품에 반영해 왔다. 자신만의 세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온 그들의 새로운 시선을 감상하다 보면 동시대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최찬숙, '큐빗 투 아담' 전시 전경, 2021. 사진 홍철기